

“미국을 보면서”

인도의 성자 선다 싱이 추운 겨울에 히말리야 산길을 친구와 함께 걸어 가고 있었다. 도중에 추위에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다. 그 사람을 데리고 가자고 하자 친구는 모른체하고 가고 선다 싱이 추위에 죽어 가는 사람을 등에 업고 걸어 갔다. 얼마를 가다보니 선다 싱의 체온 때문에 등에 업힌 그 사람은 의식을 회복하여 함께 걸어가게 되었다. 한참을 가다보니 먼저 갔던 친구가 추위를 견디지 못해 쓰러져 있었다. 힘들어도 함께 하면 살게 된다. 그러나 나 혼자 살겠다고 하면 그 결과는 죽게 되는 것이다.

요즘 미국사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America first”를 주장하고 있다. 손해가 되면 전임자가 맺은 모든 통상조약을 파기하거나 수정하고 있다. 어느 나라든지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연히 “우리는 손해 보는 짓을 하지 않을 것 입니다” 라고 떠들어 되면 강대국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진다. 또 그뿐 아니라 예루 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인 해주었다. 그 일에 반발하고 있는 주변 가난한 아랍국가들을 향해 “우리가 주고있는 경제 원조를 중단하겠다” 고 협박하면서 갑질을 자행하고 있다. 이번 주 시사주간지 타임지의 표지 그림은 세계적으로 점점 고립되고 있는 미국을 그려 놓았다. 그리고 과연 미국 제일주의가 세계화 되어 버린 이 상황에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 것인가라고 질문 하고 있다. 기사는 이렇게 결론을 맺었다. “세계화는 선택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나만 잘살겠다는 것은 결국 자승자박 하게 된다. 어느 역사 학자는 머지 않아 미국은 강대국이 아니라 아주 작은 약소국가로 전락하고 그대신 중국이 최강국이 될 것으로 예언했다. 상상이 되지않는다. 그러나 미국 같은 강대국이 세계인들을 향한 배려와 아량이 없이 갑질이나 하고 그런 모습이 계속되면 몰락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했다. 선다 싱 처럼 함께 살고자 하면 다 살지만 나만 살겠다고 하면 얼어 죽는다. 우리 주변의 많은 삶들이 그것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다.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